

무등산엔 수달이, 월출산에 남생이가...깃대종 보호사업 '성과'

광주·전남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등 깃대종 개체수 회복세 다도해 '자생 풍란' '상괘이' 증가·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광주·전남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 남생이, 상괘이, 반달가슴곰 등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국립공원 깃대종(Flagship Species·생태계 지표종) 보호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 이외에도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가 필요한 종(種)을 지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0일 광주일보가 국립공원공단(공단)에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보한 '광주·전남 국립공원 깃대종 보호 현황'에 따르면 무등산과 월출산(영암), 다도해, 지리산(구례)의 대부분의 깃대종들의 개체 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무등산의 깃대종은 털조장나무와 수달이다. 털조장나무는 봄 식물로, 무등산과 조계산(순

천시), 일본 등지에 분포하는 낙엽성 관목에 해당하고 광주와 전남 일부에만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털조장나무는 2019년 1682그루에서 2020년 1835그루, 2021년 2184그루까지 회복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죽제비과의 '수달'은 2019년 4마리에서 2023년 10마리까지 늘어났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모피 사용을 위한 남획, 하천의 황폐화 등의 이유로 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나 깃대종으로 관리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특정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야생 동식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을 지정해 관리(깃대종)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총 41

종(식물 21종, 포유류 7종, 조류 6종, 양서파충류 3종, 어류 3종, 곤충류 1종)의 야생동식물이 깃대종으로 선정됐다.

깃대종 선정 조건으로는 '법정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해양보호생물 등)으로 지정됐거나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고유종 및 문화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거나, 해당지역의 명칭 등이 증명에 포함돼 있을 경우, 공원 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깃대종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은 깃대종 유전자원 확보 및 서식지 모니터링, ESG협력사업, 깃대종 보호안내 간판 및 현수막 설치, 국립공원 내 깃대종 조형물 제작·설치, 지역 내 깃대종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전남 다른 국립공원에서 깃대종 개체수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

근근이주걱과 남생이가 깃대종으로 지정된 월출산 국립공원에서는 습지에서 자라는 근근이주걱이 2019년 20개체만 확인됐지만, 2020년 60개체, 2021년 751개체, 2022년 763개체로 늘었다가

2023년 1009개체로 221% 대폭 증가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자라과 동물 남생이는 식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남획되고 서식 환경 악화로 개체수가 크게 줄고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의 등장으로 멸종위기에 놓였다.

월출산 국립공원은 남생이를 깃대종으로 꾸준히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9년 1개체에서 2021년 4개체, 2022년 5개체가 확인됐다.

다도해 국립공원은 '풍란'과 '상괘이'를 선정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전남·경남 남해안·제주도에 자생하는 풍란은 2019년 17개체에서 2023년 34개체로 2배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토종 고래로, '웃는 고래'라 불리는 상괘이 역시 2019년 81마리에서 2023년 177마리로 118% 증가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지리산 국립공원공단의 깃대종으로 2004년부터 복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반도 전역에 널리 서식했던 지리산 반달가슴곰

은 한국전쟁과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훼손 등의 문제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2019년 67마리에 그쳤던 지리산 반달가슴곰은 2020년 69마리, 2021년 74마리, 2022년 75마리, 2023년 85마리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성과를 드러냈다.

다만 지리산 국립공원의 깃대종인 낙엽관목의 '히어리'는 구례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구례 사무소의 히어리는 2019년 638개체에서 2020년 591개체, 2021년 595개체, 2022년 601개체, 2023년 610개체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전북 사무소 역시 2019년 2376개체에서 2023년 2300개체로 되려 줄었다.

반면 경남에서는 182개체에서 2023년 517개체로 3배가량 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깃대종 보호·관리를 통해 국립공원의 전체 생태계의 건강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생물종과 서식지 보호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사회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광주·전남 13명 입상

웹마스터·데이터 입력 분야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광주·전남 대표 참가자 13명이 웹마스터, 데이터 입력 등의 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선전했다.

〈관련기사 20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전남 장애인 52명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고용노동부 주최로 충북에서 열린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40개 직종에 참가해 금 2개, 은 3개, 동 6개, 장려상 2개 등 13 분야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대표선수 432명이 총 40개 직종에 참가했다. 광주에서 31명, 전남에서 21명이 지역 대표로 대회에 나섰다.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각 지역별 기능경기대회에서 종목을 우승한 참가자들이 기량을 겨루는 자리로, 매년 전국 사도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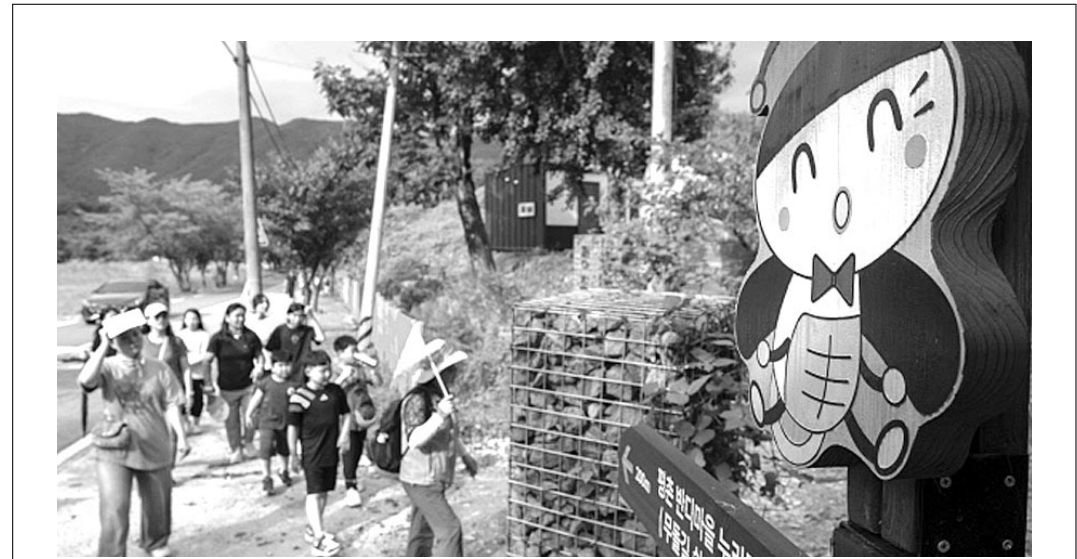
광주에서는 신수호씨가 웹마스터 직종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고, 이길(양북)·정미란(화웨이상식)

등 2명이 은메달을, 김영열(워드프로세서)·전진용(귀금속공예)·배완희(한복)·한기경(캐릭터디자인)·노채영(제과제빵) 등 5명이 동메달을 양홍선(컴퓨터수리), 강대성(나전철기) 등 2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 대표로는 순천 출신 신무진(16)군이 데이터 입력 직종에서 최연소 금메달을 차지했고, 박주영(캐릭터디자인)·이봉덕(양복) 등 2명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입상자에게는 상장·메달과 함께 최대 1200만원의 상금이 제공되며, 해당 직종 국가기술 자격 기사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혜택과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공단도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 무등산 평촌마을 일대에서 열린 평촌 반디숲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숲 해설사와 함께 반딧불이 사는 평촌마을 주변을 걸으며 곤충, 식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산 평촌마을서 '반딧불이'와 1박2일 환경부, 체류형 생태관광 체험단 25명 모집... 18일까지

광주 무등산 평촌마을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반딧불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024년 체류형 생태관광 체험단' 25명을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생태관광 체험은 전국민(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이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광주시 북구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에서 진행된다.

첫날인 27일 오전에는 무등산 생태평화 여행길(왕버들나무-광주호수생태원 트레킹 등)을 시작으로 무등산 생태와 분청사기 도예 체험,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가을밤 작은음악회 등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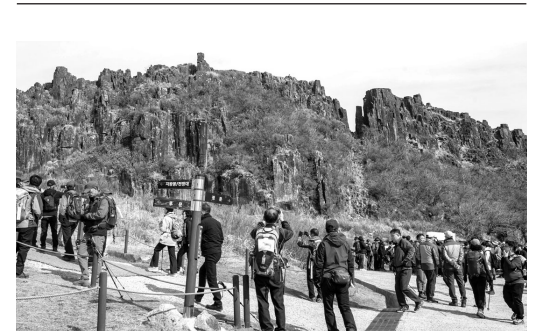
을 해볼 수 있다.

둘째날에는 무등길 쉼터 트레킹과 평촌마을 외할머니 농촌체험(포도 농장), 소쇄원과 식영정, 환벽당 등 무등산 가시문화와 생태길을 방문해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 해설을 들으며 무등산 자연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반디밥상, 두부밥상, 무등길 쉼터 식당 등 평촌마을 주민들이 지역 농산물로 만든 식사도 함께 제공된다.

체험 비용은 1인당 13만원으로 네스트투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SNS를 활용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립공원 청년주간' 30일까지 공원시설 3종 30% 할인

국립공원공단이 청년의 날(9월 21일)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원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단은 '국립공원 청년주간'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공원 시설 3종에 한해 청년 이용객(만 19~34세)에게 시설 사용료 30%를 할인한다고 10일 밝혔다. 혜택이 제공되는 시설은 야영장과 생태탐방원, 대피소로 각각 영지 사용료, 생활관 사용료(프로그램 요금 제외), 대피소 사용료 등이다.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에 접속해 시설 예약 후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 후 현장할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예약자 본인이 청년일 경우에만 할인이 제공되며 그린카드 할인 등 중복할인은 불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꿈드림센터, 올해 검정고시 147명 합격

여가부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광주시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센터 내 청소년 147명이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

꿈드림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전국에 시행하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광산구가(사)인재육성아카데미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꿈드림센터 검정고시 대비반 청소년들은 2024년 1회 시험(4월 6일)에서 79명, 2회 시험(8월 8일)

에서 68명이 합격했다.

꿈드림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10여년간 매년 두 차례씩 검정고시 대비반 'Dream Class'를 운영하며, 올해까지 1105명의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검정고시 대비반은 기출문제, 교재, 인터넷 강의, 시험 당일 도시락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하영자 꿈드림센터 센터장은 "꿈드림센터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여러 분야에 도전하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여신사업부· 양산지점· 운암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문흥지점· 동림지점· 각화지점